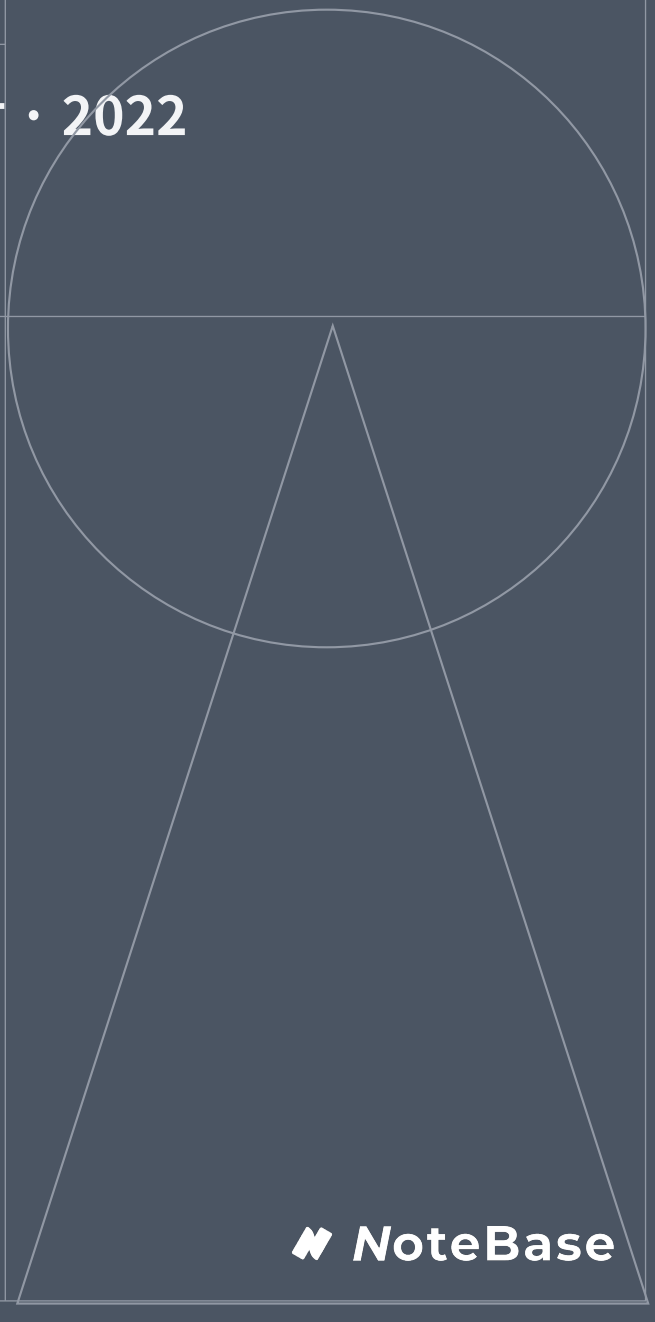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조경학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조경학 · 2022

공무원/지방직/7급 · 조경학 · 2022

문 1. 리튼(Litton, 1974)이 제시한 경관유형을 지배하는 4가지 경관우세요소가 아닌 것은?

① 질감(texture)

② 형태(form)

③ 선(line)

④ 거리(distanc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리튼(Litton)이 제시한 경관 선호를 지배하는 시각적 요소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튼의 경관 선호 요소는 질감(texture), 형태(form), 선(line), 색채(color)이다. 질감은 표면의 거칠고 부드러운 느낌, 형태는 대상의 외곽 윤곽과 덩어리, 선은 시선을 이끄는 방향성과 윤곽, 색채는 색의 성질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질감(texture)은 리튼이 제시한 경관 선호의 시각적 요소이다.
② O. 형태(form)는 대상의 윤곽과 덩어리에 관한 시각적 요소이다.
③ O. 선(line)은 경관을 구성하고 시선을 유도하는 시각적 요소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거리(distance)'이다. 거리는 리튼의 4가지 경관 선호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색채(color)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경관을 볼 때 거리도 중요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인식을 이용한 선지이다. 그러나 이론에서 열거한 고정된 4요소인지로 판단해야 하며, 거리 대신 색채가 들어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튼의 요소를 묻는 문항에서는 질감·형태·선·색채의 네 항목을 먼저 대조한다. 거리, 규모, 음향처럼 경관 평가에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말은 이 4요소의 명칭이 아니면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리튼의 경관 선호 4요소: 질·형·선·색이다.

NoteBase

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원 시설은?

야외극장, 생태학습원, 민속놀이마당, 기상관측시설

① 조경시설
② 교양시설
③ 휴양시설
④ 유희시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원시설 종류 분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열거된 시설을 기능이 비슷해 보이는 명칭이 아니라 별표상의 분류로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교양시설은 도시민의 학습·문화·관람 등 교양함양을 위한 공원시설이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의 교양시설에는 야외극장, 기상관측시설, 생태학습원, 민속놀이마당이 열거되어 있다. 조경시설은 공원경관을 꾸미는 시설이고, 휴양시설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유희시설은 놀이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야외극장·생태학습원·민속놀이마당·기상관측시설은 식재·잔디밭·못처럼 공원경관을 꾸미는 조경시설이 아니다.
틀린 표현: 조경시설
올바른 표현: 교양시설

② O
네 시설은 모두 별표 1 제5호의 교양시설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옳다.

③ X
휴양시설은 야유회장·야영장·경로당·노인복지관·수목원 등 휴식공간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다. 제시된 네 시설의 분류는 휴양시설이 아니다.
틀린 표현: 휴양시설
올바른 표현: 교양시설

④ X
유희시설은 시소·정글짐·모험놀이장·유원시설 등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이다. 민속놀이마당이라는 명칭만으로 유희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유희시설
올바른 표현: 교양시설

오답 포인트

민속놀이마당에 '놀이'가 들어가므로 ④ 유희시설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별표의 개별 열거에 따르면 민속놀이마당은 야외극장·생태학습원·기상관측시설과 함께 교양시설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시설 분류 문제에서는 시설 명칭의 일상적 뜻으로 추정하지 않고, 별표에 함께 열거된 시설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야외극장·생태학습원·민속놀이마당·기상관측시설은 교양시설로 묶는다.

암기 포인트

야외극장·생태학습·민속놀이·기상관측 = 교양시설이다.

NoteBase

문 3. 도로 설계 시 기술적 관점에서 적용해야 할 일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의 노선은 가급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② 영구 음지나 습한 곳은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선정한다.

③ 도로의 선형은 가급적 직선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곡선부 반경을 최대로 한다.

④ 교량은 하천과 사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도로 설계의 기술적 원칙, 특히 양호한 노선 선정·선형 처리와 교량의 하천 횡단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도로 노선은 급경사·습지·상시 그늘처럼 배수와 주행 안전에 불리한 조건을 피하고, 가능한 한 완만하고 단순하게 계획한다. 선형은 직선 위주로 하되 곡선이 필요하면 큰 반경을 사용한다. 하천을 건너는 교량은 하천 흐름에 가깝게 직각으로 설치하여 교량 길이와 흐름 방해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노선의 종단경사는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여 차량 주행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다.
② O. 영구 음지나 습한 곳은 배수 불량·동결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피하고, 통풍과 일조 조건이 비교적 좋은 곳을 택한다.
③ O. 도로 선형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계획하고, 지형 등으로 곡선이 불가피하면 곡선반경을 크게 하여 시거와 주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하천과 사선'이다. 교량은 일반적으로 하천의 흐름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사선으로 건너면 교량 길이가 길어지고 하천 흐름 및 교대 배치가 불리해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도로가 기존 지형이나 장애물을 비스듬히 지나는 경우를 교량의 하천 횡단 원칙과 혼동하게 한다. 하천 횡단에서는 '사선'이 아니라 '직각'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로 노선은 완만한 경사, 양호한 배수·통풍, 큰 곡선반경처럼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유리한 방향인지 확인한다. 교량과 하천의 관계를 묻는 선지는 교량축이 하천 흐름에 직각인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도로는 완만·직선·큰 반경, 교량은 하천에 직각이다.

NoteBase

문 4. 조경수목의 규격표시 중 관목류의 규격표시를 나타내는 것은?

①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뛰어난 수목은 수고 H(m) × 수관폭 W(m) × 수관길이 L(m)로 표시

② 수고 H(m) × 수관폭 W(m) × 근원지름 R(cm)로 표시

③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 × 수관폭 W(m) × 흉고지름 B(cm)로 표시

④ 수고 H(m) × 근원지름 R(cm)로 표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수목 중 관목류의 수관 형태에 따른 규격표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목류는 줄기의 지름보다 수고와 수관의 크기·방향이 규격 판단의 중심이 된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특히 발달한 관목은 수고 $H(m)$ × 수관폭 $W(m)$ × 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반면 근원지름 R 또는 흉고지름 B는 줄기 지름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뚜렷한 관목은 수고 $H(m)$, 수관폭 $W(m)$, 수관길이 $L(m)$를 함께 표시한다. 수관길이 L가 비대칭적인 수관의 길이 방향을 드러내므로 옳다.
② X: '수고 H × 수관폭 W × 근원지름 R'에서 근원지름 R를 포함한 것이 관목류의 해당 규격표시가 아니다. 한쪽 길이 방향의 성장이 뚜렷한 관목은 근원지름 R 대신 수관길이 L를 써서 $H\times W\times L$로 표시한다.
③ X: '흉고지름 B'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줄기 지름을 기준으로 하는 수목의 표시이다. 관목류의 해당 조건에서는 흉고지름 B가 아니라 수관길이 L를 포함한 $H\times W\times L$로 표시한다.
④ X: '수고 H × 근원지름 R'만으로는 관목의 수관폭과 한쪽 길이 방향의 발달 정도를 나타낼 수 없다. 해당 관목은 $H\times W\times L$로 표시한다.

오답 포인트

②~④는 근원지름 R 또는 흉고지름 B처럼 줄기 지름 항목을 넣어 관목의 수관 규격과 혼동하게 한다. 이 문항의 단서는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뛰어난'이라는 표현이며, 이때 추가되는 값은 줄기 지름이 아니라 수관길이 L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목 규격에서 수관의 방향성·길이 차이가 제시되면 먼저 수관폭 W와 수관길이 L가 모두 있는지를 확인한다. 근원지름 R이나 흉고지름 B가 중심이면 줄기 지름을 쓰는 다른 수목 규격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쪽으로 길게 자란 관목은 '높이·폭·길이', 즉 $H \times W \times L$이다.

NoteBase

문 5. 수목의 뿌리돌림 후 뿌리와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지·전정 강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낙엽수: 전체의 1/2 정도, 상록활엽수: 전체의 1/3 정도

② 낙엽수: 전체의 2/3 정도, 상록활엽수: 전체의 1/3 정도

③ 낙엽수: 전체의 1/3 정도, 상록활엽수: 전체의 2/3 정도

④ 낙엽수: 전체의 1/3 정도, 상록활엽수: 전체의 1/2 정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뿌리돌림 후 이식 전 뿌리와 지상부의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종별 전정 강도를 묻는다.

핵심 개념

뿌리돌림은 이식 전에 뿌리를 절단하여 잔뿌리 발생을 촉진하는 작업이다. 뿌리가 절단되면 흡수 능력이 줄어드므로, 증산하는 가지와 잎의 양도 전정으로 줄여 균형을 맞춘다. 낙엽수는 전체의 $\frac{1}{3}$ 정도, 상록활엽수는 전체의 $\frac{2}{3}$ 정도를 전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낙엽수 $\frac{1}{2}$, 상록활엽수 $\frac{1}{3}$의 조합은 기준과 다르다. 틀린 표현은 두 전정 강도이며, 올바르게는 낙엽수는 전체의 $\frac{1}{3}$, 상록활엽수는 전체의 $\frac{2}{3}$ 정도이다.
② X: 낙엽수 $\frac{2}{3}$, 상록활엽수 $\frac{1}{3}$은 두 수종의 전정 강도를 모두 잘못 제시하였다. 올바르게는 낙엽수 $\frac{1}{3}$, 상록활엽수 $\frac{2}{3}$ 정도이다.
③ O: 뿌리돌림 후 낙엽수는 전체의 $\frac{1}{3}$, 상록활엽수는 전체의 $\frac{2}{3}$ 정도 전정하여 뿌리와 가지의 균형을 맞춘다.
④ X: 낙엽수 $\frac{1}{3}$은 맞지만 상록활엽수의 전정 강도를 $\frac{1}{2}$로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상록활엽수는 전체의 $\frac{2}{3}$ 정도를 전정한다.

오답 포인트

낙엽수와 상록활엽수의 수치를 서로 바꾸거나, 상록활엽수의 전정 강도를 $\frac{1}{2}$로 낮춰 기억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상록활엽수가 $\frac{2}{3}$으로 더 강하게 전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뿌리돌림 뒤에는 뿌리의 흡수량 감소와 지상부의 증산량을 맞춘다는 원리부터 확인한다. 이어서 낙엽수 $\frac{1}{3}$, 상록활엽수 $\frac{2}{3}$의 조합인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뿌리돌림 후 전정은 낙엽수 $\frac{1}{3}$, 상록활엽수 $\frac{2}{3}$이다.

NoteBase

문 6. 「조경설계기준」에서 원형녹지 보전을 위한 환경적 평가 기준 1등급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경사도 25% 이상
② 생태자연도 1등급
③ 임상도 3영급 이상
④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의 원형녹지 보전을 위한 환경적 평가에서 1등급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주제도의 1등급 기준값을 정확히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원형녹지란 개발 대상지 안에서 기존의 산림·녹지 생태계를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려는 녹지를 말한다.

핵심 구분

「조경설계기준」 부표 31-5의 1등급 조건은 생태자연도 1등급, 임상도 3영급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경사도 25% 이상이다. 녹지자연도는 등급 숫자가 클수록 보전가치가 높은 쪽으로 분류되며, 6등급 이하는 3등급 조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사도 25% 이상은 지형 부문의 1등급 조건이다.
② O: 임상도 3영급 이상은 산림 및 녹지 생태 부문의 1등급 조건이다.
③ O: 생태자연도 1등급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1등급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녹지자연도 6등급 이상'이다. 올바르게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1등급 조건이다. 6등급 이하는 3등급 조건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녹지자연도의 방향을 뒤집은 선지이다. 임상도는 3영급 이상이 1등급이지만, 녹지자연도는 8등급 이상이어야 1등급이므로 두 기준의 숫자를 그대로 대응시키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형녹지의 1등급 조건은 생태자연도·임상도·녹지자연도·경사도의 기준값을 각각 대조하여 판단한다. 특히 녹지자연도는 8등급 이상인지, 임상도는 3영급 이상인지를 분리해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원형녹지 1등급은 생태 1·임상 3·녹지 8·경사 25이다.

NoteBase

문 7. 수목의 색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붉은색의 단풍은 카로티노이드계의 크산토필(Xanthophyll) 작용에 의한 것이다.

② 금테사철, 식나무, 황금쥐똥나무 등에 생기는 무늬잎은 키메라 현상에 의한 것이다.

③ 홍단풍은 잎의 색이 신록 때부터 낙엽 때까지 붉은색을 유지한다.

④ 꽃나무의 꽃색에는 적색, 청색, 백색, 황색, 자색, 분홍색 등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목의 잎과 꽃에 나타나는 색채의 원인, 특히 색소와 키메라 현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크산토필은 카로티노이드계의 황색 색소이다. 붉은 단풍의 주된 원인은 안토시아닌 색소이다.
키메라 현상은 한 식물체 안에 유전적으로 다른 세포 조직이 함께 존재하여 무늬잎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홍단풍은 생육기부터 낙엽기까지 붉은 잎색을 유지하는 수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크산토필 작용'이다. 크산토필은 황색을 나타내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이며, 붉은 단풍은 주로 안토시아닌에 의해 나타난다.
② O. 금테사철·식나무·황금쥐똥나무 등의 무늬잎은 서로 다른 세포 조직이 공존하는 키메라 현상으로 생길 수 있다.
③ O. 홍단풍은 잎이 필 때부터 낙엽할 때까지 붉은색을 유지하는 특성을 지닌다.
④ O. 꽃나무의 꽃색에는 적색, 청색, 백색, 황색, 자색, 분홍색 등 여러 색이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라는 말만 보고 맞는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크산토필은 황색 계열이고, 붉은 단풍의 색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의 대응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잎의 색채를 묻는 선지에서는 먼저 색소와 색을 연결해 판단한다. 황색은 크산토필, 붉은색은 안토시아닌으로 구별하고, 무늬잎은 키메라 현상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크산토필은 황색, 안토시아닌은 붉은색, 무늬잎은 키메라이다.

NoteBase

문 8.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이다.

②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에서의 증상은 약 20일 후면 잎이 시들기 시작하고 약 30일 후에는 밑으로 처지면서 고사하는 증세가 나타난다.

③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그해 모두 고사한다.

④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소각, 훈증, 파쇄 등으로 처리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 감염 후 병징의 진행, 고사 시기 및 방제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류에 침입하여 수분 이동을 방해하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이며, 감염목은 소각·훈증·파쇄 등으로 처리하여 매개충의 확산을 막는다.
감염목은 결국 고사하지만, 감염 시기와 기온에 따라 고사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늦게 감염된 나무는 이듬해에 고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이다.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를 섭식할 때 생긴 상처를 통해 재선충이 침입한다.

② O. 감염 후 재선충이 증식하면서 수분 이동이 저해되어 약 20일 후 잎이 시들기 시작하고, 약 30일 후에는 잎이 밑으로 처지며 고사 증세가 나타난다.

③ X. 틀린 표현은 '그해 모두 고사한다'이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는 치명적이어서 결국 고사하지만, 감염 시기와 온도에 따라 일부는 이듬해에 고사할 수 있다.

④ O. 감염목은 재선충과 매개충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각, 훈증,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감염되면 결국 고사한다'는 사실을 '감염한 그해에 모두 고사한다'로 바꾸어 고사 시기를 절대화한 선지이다. 감염 시기에 따라 고사 시점이 이듬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선충병 선지에서는 매개충의 이름, 병징의 진행, 고사 시기, 감염목 처리 방법을 나누어 확인한다. 특히 '모두', '반드시 그해'처럼 시기를 단정하는 표현은 감염 시기와 기온의 영향을 함께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재선충병: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가 매개하고, 감염목은 소각·훈증·파쇄한다. 고사는 100%이지만 시점은 그해 또는 이듬해가 될 수 있다.

NoteBase

문 9. 주거지역에서 대지면적 $500m^2$를 확보하여 연면적 $200m^2$ 주택을 계획하고자 한다. 법정 조경면적은 5%, 식재밀도는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일 때 교목과 관목의 식재수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교목: 3주 이상, 관목: 13주 이상

② 교목: 3주 이상, 관목: 25주 이상

③ 교목: 5주 이상, 관목: 13주 이상

④ 교목: 5주 이상, 관목: 25주 이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법정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에 조경면적률을 곱해 구한 뒤, 면적당 식재 기준으로 교목과 관목의 최소 식재수량을 산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대지면적은 $500m^2$이고 법정 조경면적률은 5%이다. 교목은 $1m^2$당 0.2주 이상, 관목은 $1m^2$당 1.0주 이상 식재한다. 연면적 $200m^2$는 이 문제에서 법정 조경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이 아니다.

사용할 공식

법정 조경면적 = 대지면적 × 조경면적률, 식재수량 = 법정 조경면적 × 면적당 식재기준이다. 문제에서 조경면적률의 기준을 대지면적으로 제시했으므로 대지면적 $500m^2$에 5%를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법정 조경면적은 $500m^2 \times 0.05 = 25m^2$이다.
2. 교목은 25 m^2 × 0.2 주/m^2 = 5 주 이상이다.
3. 관목은 25 m^2 × 1.0 주/m^2 = 25 주 이상이다.

선지 판단

① X. 교목 3주 이상, 관목 13주 이상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교목 3주' → 교목 5주 이상, '관목 13주' → 관목 25주 이상이 맞다.
② X. 관목 25주 이상은 맞지만 교목 3주 이상이 틀리다. '교목 3주' → 교목 5주 이상이 맞다.
③ X. 교목 5주 이상은 맞지만 관목 13주 이상이 틀리다. '관목 13주' → 관목 25주 이상이 맞다.
④ O. 교목 5주 이상, 관목 25주 이상은 각각 면적당 식재기준을 법정 조경면적 $25m^2$에 적용한 결과와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교목 수량만 계산하고 관목 수량을 절반가량으로 잘못 계산하는 함정이 있다. 교목과 관목은 모두 같은 법정 조경면적 $25m^2$에 각각의 별도 식재기준을 곱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지면적과 조경면적률로 법정 조경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에 교목·관목의 면적당 기준을 각각 곱해 최소 주수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조경면적률 → 법정 조경면적, 법정 조경면적 × 식재기준 → 교목·관목 주수이다.

NoteBase

문 10. 경복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태전 뒤의 아미산은 경회루를 조성하면서 나온 흙을 이용하여 만든 인공산이다.

② 자경전에는 대비의 장수를 기원하는 효의 상징인 꽃담이 놓여 있다.

③ 향원정 지붕은 팔각형이며 2층 건물이다.

④ 교태전 후원 화계에는 철쭉, 옥매 등의 관목류가, 아미산에는 말채나무, 느티나무 등이 재식되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복궁의 침전 권역과 후원 조경시설을 대상으로 아미산·자경전 꽃담·향원정의 조성 배경과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아미산은 교태전 뒤에 경회루 연못을 조성하면서 나온 흙을 쌓아 만든 인공산이다. 자경전의 꽃담은 대비의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 공간이다. 향원정은 향원지의 섬 위에 세운 육각형 평면의 2층 정자이며, 지붕도 육각형의 육모지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아미산은 교태전 뒤에 있으며, 경회루를 조성하면서 나온 흙을 이용해 만든 인공산이라는 설명이 맞다.

② O. 자경전 꽃담에는 대비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설명이 맞다.

③ X. 틀린 표현은 '지붕은 팔각형'이다. 향원정은 육각형 평면의 2층 정자이고 지붕도 육각형의 육모지붕이다.

④ O. 교태전 후원 화계에는 철쭉·옥매 등의 관목류를, 아미산에는 말채나무·느티나무 등의 수목을 재식한 것으로 보아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향원정이 2층 건물이라는 맞는 정보에 '팔각형'이라는 틀린 형태를 결합한 선지이다. 향원정은 육각형 정자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궐 조경 문제에서는 시설의 위치·조성 재료·상징성·평면 및 지붕 형태를 나누어 대조한다. 특히 형태를 묻는 선지는 '육각형·팔각형'처럼 한 글자 차이의 표현을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아미산은 경회루 흙으로 만든 인공산, 자경전 꽃담은 대비 장수, 향원정은 육각 2층 정자이다.

NoteBase

문 11. 자연풍경식 식재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대칭적 균형감과 심리적 질서감에 초점을 둔 식재 형식이다.

②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경관을 충실히 재현하고자 하는 식재 형식이다.

③ 정형적인 식재 형식에 비해 수종의 선택과 식재가 비교적 자유롭다.

④ 식재의 입면구성보다는 평면구성에 중점을 둔 식재 형식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풍경식 식재와 정형식 식재의 구성 원리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풍경식 식재는 자연경관의 불규칙하고 변화 있는 모습을 본떠 심리적 균형과 공간감을 만드는 식재 방식이다. 정형식 식재는 축선·대칭·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해 질서 있는 평면 구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자연풍경식은 비대칭·입면 및 공간구성·수종 선택의 자유가, 정형식은 대칭·평면구성·규칙성이 핵심 키워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연풍경식은 좌우가 같은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적 균형을 사용하되, 전체적으로 안정된 심리적 질서감을 형성한다.
② O. 자연풍경식은 자연에서 보이는 수목의 군락과 경관을 충실히 재현하려는 식재 형식이다.
③ O. 정형식보다 수종의 선택과 식재 위치·배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정형식은 축선과 대칭, 반복되는 형태에 맞추어 수종과 배치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평면구성에 중점'이다. 자연풍경식은 평면의 기하학적 배열보다 수목의 높이·층위와 경관의 깊이를 살리는 입면 및 공간구성에 중점을 둔다. 평면구성을 강조하는 쪽은 정형식 식재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자연풍경식과 정형식의 구성 초점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자연스러움'만 기억하면 ④를 맞는 말로 보기 쉽지만, 자연풍경식은 입면과 공간감을 중시한다는 점까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대칭·축선·기하학적 평면·규칙적 반복이 나오면 정형식인지 확인한다. 비대칭 균형·자연경관 재현·자유로운 배치·입면과 공간감이 나오면 자연풍경식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형식은 대칭 평면, 자연풍경식은 비대칭 공간이다.

NoteBase

문 12. 흡즙성 해충이 아닌 것은?

① 잎응애
② 진딧물
③ 흰불나방
④ 깍지벌레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수 해충을 흡즙성 해충과 식엽성 해충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흡즙성 해충은 식물체에 침을 꽂아 수액을 빨아 먹고, 식엽성 해충은 잎을 갉아 먹는다.

핵심 개념

응애·진딧물·깍지벌레는 식물의 즙액을 흡즙하여 생육을 약화시키는 해충이다. 흰불나방은 유충이 잎을 갉아 먹는 식엽성 해충이다. 흡즙성은 수액을 빨아 먹는 방식, 식엽성은 잎을 씹어 먹는 방식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응애는 잎의 즙액을 빨아 먹어 잎의 황화·퇴색 등을 일으키는 흡즙성 해충이다.
② O — 진딧물은 침을 식물 조직에 꽂아 수액을 흡즙하는 대표적인 흡즙성 해충이다.
③ X — 흰불나방은 유충이 잎을 갉아 먹는 식엽성 해충이므로 흡즙성 해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흡즙성'이며, 올바르게는 '식엽성 해충'이다.
④ O — 깍지벌레는 식물체에 붙어 즙액을 빨아 먹는 흡즙성 해충이다.

오답 포인트

흰불나방도 수목을 해치지만 피해 방식이 다르다. 성충 이름만 보고 다른 해충과 같은 흡즙성으로 묶기 쉽지만, 잎을 실제로 갉아 먹는 유충의 가해 방식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충이 수액을 빨아 먹으면 흡즙성, 잎·줄기·뿌리 등의 조직을 씹어 먹으면 식엽성 또는 식해성으로 분류한다. 선지의 해충 이름보다 가해 부위와 섭식 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응애·진딧물·깍지벌레는 흡즙, 흰불나방 유충은 식엽이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고대 로마시대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트리움(atrium)의 중앙부에 있는 빗물을 받기 위한 수조로서 모은 물은 가사용이나 식물에 관수하는 용도로 쓰인다.

① 타블리눔(tablinum)
② 임플루비움(impluvium)
③ 페리스틸리움(peristylium)
④ 콤플루비움(compluvium)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대 로마 주택의 아트리움 구성 요소인 임플루비움, 콤플루비움, 타블리눔, 페리스틸리움의 기능과 위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플루비움(impluvium)은 아트리움 바닥 중앙에 설치하여 빗물을 받아 모으는 수조이다.
콤플루비움(compluvium)은 빗물이 안쪽으로 흘러 임플루비움에 모이도록 한 아트리움 지붕의 중앙 개구부이다.
타블리눔(tablinum)은 아트리움 뒤쪽에 둔 주인의 접견·집무 공간이다.
페리스틸리움(peristylium)은 기둥으로 둘러싼 안뜰 또는 정원 공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명칭은 '타블리눔'이다. 타블리눔은 수조가 아니라 아트리움 뒤쪽의 접견·집무 공간이다. 빗물을 받는 수조는 임플루비움이다.
② O. 임플루비움은 아트리움 중앙부에 설치한 빗물받이 수조로, 모은 물은 생활용수나 식물 관수에 이용할 수 있다.
③ X. 틀린 명칭은 '페리스틸리움'이다. 페리스틸리움은 기둥으로 둘러싸인 안뜰·정원 공간이다. 빗물을 받는 중앙 수조는 임플루비움이다.
④ X. 틀린 명칭은 '콤플루비움'이다. 콤플루비움은 수조가 아니라 빗물을 안쪽의 임플루비움으로 유도하는 지붕의 중앙 개구부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임플루비움과 ④의 콤플루비움은 모두 빗물과 관련되어 혼동하기 쉽다. 물을 실제로 받아 저장하는 바닥의 수조는 임플루비움이고, 그 수조로 물을 떨어뜨리도록 지붕에 낸 부분은 콤플루비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로마 주택 용어는 기능과 위치로 판단한다. 바닥 중앙에서 물을 모으면 임플루비움, 그 위 지붕에서 물을 들이면 콤플루비움, 아트리움 뒤 접견실이면 타블리눔, 기둥 둘레의 안뜰이면 페리스틸리움이다.

암기 포인트

임플루비움은 물을 담는 못, 콤플루비움은 물을 모으는 지붕이다.

NoteBase

문 14. 생태적 천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적 천이란 시간에 따른 군집의 변화를 말한다.

② 습성천이, 건성천이, 중성천이는 1차 천이 단계에서 구분될 수 있다.

③ 1차 천이는 타발적 천이이고, 2차 천이는 자발적 천이의 성격을 갖는다.

④ 천이의 최종적인 안정된 단계를 극상이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태적 천이의 의미와 분류 기준, 그리고 극상 단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태적 천이는 한 지역의 군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군집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1차 천이는 토양이나 기존 생물이 거의 없는 곳에서 시작하고, 2차 천이는 교란 뒤 토양이나 번식체 등이 남은 곳에서 시작한다. 자발적 천이는 군집 내부 생물의 작용으로 환경이 변해 진행되는 천이이고, 타발적 천이는 기후 변화·퇴적·침식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진행되는 천이이다. 습성천이·건성천이·중성천이는 시작 서식지의 수분 조건에 따른 1차 천이의 구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태적 천이는 시간에 따라 한 지역의 군집 구성과 구조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 O. 1차 천이는 출발지의 수분 조건에 따라 습성천이, 건성천이, 중성천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1차 천이는 타발적 천이이고, 2차 천이는 자발적 천이'이다. 1차·2차 천이는 천이가 시작될 때 토양과 기존 생물의 잔존 여부에 따른 구분이고, 자발·타발 천이는 천이를 일으키는 요인에 따른 구분이다.
따라서 두 분류를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다.

④ O. 천이의 최종 안정 단계로, 환경과 비교적 평형을 이루는 군집을 극상이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1차·2차'와 '자발·타발'이 모두 천이의 분류라는 점을 이용해 분류 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1차·2차는 출발 조건, 자발·타발은 변화 원인을 기준으로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천이의 분류가 나오면 먼저 기준을 확인한다. 토양·기존 군집의 잔존 여부를 묻으면 1차·2차 천이이고, 천이를 유발한 변화의 원인을 묻으면 자발·타발 천이이다. 수분 조건을 묻으면 습성·건성·중성천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차·2차는 출발 조건, 자발·타발은 원인, 습성·건성·중성은 수분 조건의 구분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중 미량원소가 부족한 경우 그 효과를 가장 빠르게 보기 위한 시비방법은?

① 포토시비법

② 토양내시비법

③ 엽면시비법

④ 측구시비법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량원소 결핍을 신속히 교정할 때 사용하는 시비 방법을 묻는다.

핵심 개념

엽면시비는 비료 성분을 잎에 뿌려 잎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이다. 토양시비는 비료가 토양을 거쳐 뿌리로 흡수되므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미량원소 결핍의 빠른 교정에는 엽면시비가 알맞다.

선지별 해설

① X. 표토시비법은 비료를 토양 표면에 주는 토양시비 방법이다. 토양과 뿌리를 거쳐 흡수되므로 결핍 증상을 가장 빨리 교정하는 방법은 아니다. '가장 빠르게' → 엽면시비법이 알맞다.

② X. 토양내시비법은 비료를 토양 속에 주어 뿌리로 흡수시키는 방법이다. 뿌리 흡수 과정을 거치므로 즉효성이 가장 큰 방법은 아니다. '토양 내' → 잎에 직접 뿌리는 엽면시비가 빠르다.

③ O. 엽면시비법은 잎에 비료 용액을 살포하여 성분을 직접 흡수시키므로 미량원소 결핍의 효과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다.

④ X. 측구시비법은 작물의 옆 고랑에 비료를 주는 토양시비 방법이다. 뿌리 흡수를 이용하므로 미량원소 결핍을 가장 신속히 교정하는 방법은 아니다. '측구' → 토양시비가 아니라 엽면시비가 알맞다.

오답 포인트

표토시비·토양내시비·측구시비는 비료를 주는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토양을 통한 뿌리 흡수가 기본이다. 문제의 핵심 표현인 '가장 빠르게'는 잎으로 직접 흡수시키는 엽면시비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핍 증상의 신속한 교정이 목적이면 비료가 토양과 뿌리를 거치는지, 잎으로 직접 흡수되는지를 구분한다. 직접 흡수시키는 엽면시비가 우선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미량원소 결핍의 빠른 처방은 뿌리보다 잎, 즉 엽면시비이다.

NoteBase

문 16. 다음에서 설명하는 초종은?

◯ 한지형이며 지하경을 옆으로 뻗어 번식한다.
◯ 잎의 끝이 보트형을 이루어 다른 잔디와 쉽게 구별된다.
◯ 국내에서는 경기장이나 골프장 페어웨이에 많이 이용된다.

① 퍼레니얼 라이그라스(Perennial ryegrass)
② 켄터키 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
③ 크리핑 벤트그라스(Creeping bentgrass)
④ 톨 페스큐(Tall fescu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지형 잔디의 번식기관, 잎끝 모양, 주된 이용 장소를 비교하여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지하경으로 옆으로 퍼지는 한지형 잔디이며, 잎끝이 보트형인 것이 대표적 식별점이다.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와 톨 페스큐는 포기형으로 자라며 지하경으로 퍼지는 성질이 약하다. 크리핑 벤트그래스는 지상경으로 퍼지는 한지형 잔디로, 주로 골프장 그린에 이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는 한지형 잔디이지만 포기형으로 자라므로 지하경을 옆으로 뻗어 번식하는 특성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지하경을 옆으로 뻗어 번식한다'이며, 올바르게는 '포기형으로 생육한다'이다.
② O.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지하경으로 퍼지고 잎끝이 보트형이며, 국내 경기장과 골프장 페어웨이에 널리 이용된다.
③ X. 크리핑 벤트그래스는 지하경이 아니라 지상경으로 기면서 퍼진다. 틀린 표현은 제시 특성의 '지하경'과 '보트형 잎끝'이며, 올바르게는 '지상경으로 퍼지는 잔디로서 주로 골프장 그린에 이용된다'이다.
④ X. 톨 페스큐는 한지형 포기형 잔디로, 켄터키 블루그래스처럼 지하경과 보트형 잎끝이 식별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제시 특성을 톨 페스큐에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톨 페스큐는 포기형으로 생육하는 잔디'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도 한지형 잔디이므로 '한지형'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지하경으로 퍼지는 성질과 보트형 잎끝이며,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지상경과 혼동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지형 잔디는 먼저 포기형인지, 지하경형인지, 지상경형인지를 구분한다. 지하경과 보트형 잎끝이 함께 나오면 켄터키 블루그래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지하경·보트형·페어웨이', 크리핑 벤트그래스는 '지상경·그린'으로 정리한다.

문 17. 다음 수간 외과수술에 대한 사항 중 마지막 단계로 옳은 것은?

① 표면경화처리

② 공동충전 및 방수처리

③ 소독 및 방부처리

④ 인공수피처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목의 추가 외과수술에서 공동 내부를 처리·보호한 뒤 최종적으로 외부를 마감하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추가 외과수술은 부후·공동 부위를 소독·방부하고 표면을 경화하며, 공동을 충전·방수한 뒤 외부를 인공수피로 마감하는 처리이다. 인공수피처리는 처리 부위를 자연 수피와 비슷하게 덮어 보호하는 최종 마감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표면경화처리는 공동 내부의 처리면을 단단하게 하여 보호성을 높이는 중간 단계이다. 틀린 표현은 '마지막 단계'이며, 올바르게는 인공수피처리가 마지막 단계이다.
② X. 공동충전 및 방수처리는 공동을 메우고 수분 침투를 막는 보호 단계로, 외부 마감 전에 실시된다. 틀린 표현은 '마지막 단계'이며, 올바르게는 인공수피처리가 마지막 단계이다.
③ X. 소독 및 방부처리는 부후 원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추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선행 처리이다. 틀린 표현은 '마지막 단계'이며, 올바르게는 인공수피처리가 마지막 단계이다.
④ O. 인공수피처리는 앞선 내부 처리와 충전·방수 처리가 끝난 부위를 외부에서 마감·보호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공동충전·방수처리가 가장 마무리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동 내부를 보호하는 단계이다. 그 뒤 처리 부위를 외부에서 덮어 마감하는 인공수피처리가 남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과수술 공정은 '내부의 부패 제거·소독·보호'에서 '공동 충전·방수'를 거쳐 '외부 마감'으로 진행된다. 선택지 중 외부 마감 기능을 가진 처리가 마지막 단계이다.

암기 포인트

공동은 안에서 채우고 막고, 겉은 인공수피로 마감한다.

NoteBase

문 18. 잔디떼(규격 30cm × 30cm × 3cm)를 $\frac{1}{2}$ 줄떼붙이기로 하여 $10m^2$를 시공하면 약 몇 장이 소요되는가? (단, 할증은 계상하지 않는다)

① 45장

② 55장

③ 90장

④ 110장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잔디떼 1장의 면적과 1/2 줄떼 붙이기의 식재 비율을 이용하여 필요한 장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잔디떼 1장의 규격은 $30cm \times 30cm$이다. 시공 면적은 $10m^2$이고, 1/2 줄떼 붙이기는 전체 면적의 절반만 잔디떼로 덮는 시공 방법이다. 할증은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필요 장수는 '시공면적 × 식재 비율 ÷ 잔디떼 1장 면적'으로 구한다. 1/2 줄떼는 전면 붙이기가 아니라 면적의 1/2만 식재하므로 식재 비율 1/2를 곱한다.

계산 과정

1. 한 변 $30cm$는 $0.3m$이므로, 1장의 면적은 $0.3m \times 0.3m = 0.09m^2$이다.
2. 1/2 줄떼의 실제 식재 면적은 $10m^2 \times 1/2 = 5m^2$이다.
3. 필요한 장수는 $5m^2 \div 0.09m^2 \approx 55.6$장이므로, 보기의 근사값은 55장이다.

선지 판단

① X: 45장은 계산값 약 55.6장보다 적다. 45장이 아니라 약 55장으로 보아야 한다.
② O: 1/2 줄떼의 필요량은 약 55.6장이므로, 약 55장에 해당한다.
③ X: 90장은 1/2 줄떼 계산값보다 많다. 90장이 아니라 약 55장이다.
④ X: 110장은 전면 붙이기에서 $10m^2 \div 0.09m^2 \approx 111.1$장으로 계산되는 값에 가깝다. 1/2 줄떼에서는 약 55장으로 절반을 적용한다.
계산 결과가 약 55장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110장은 1/2 줄떼 조건을 빼고 전면 붙이기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줄떼 붙이기에서는 잔디가 실제로 덮는 비율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잔디 수량 문제는 먼저 규격을 m 단위로 바꾸어 1장 면적을 구하고, 줄떼의 식재 비율을 시공면적에 곱한 뒤 장수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1/2 줄떼는 전면 붙이기 수량의 절반이다: $10m^2$에서는 약 111장 → 약 55장이다.

NoteBase

문 19. 식재공사에서 뿌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근발달이 느린 수종은 분을 크게 뜬다.

② 근원지름에 대한 뿌리분의 지름의 비는 일반적으로 관목보다 교목 쪽이 크다.

③ 심근성 수종은 접시분을 뜨고, 천근성 수종은 조개분을 뜬다.

④ 산에서 채집한 수목의 경우 분을 작게 뜬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목의 뿌리 발달 특성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와 형태를 정하는 원리를 묻는다.

핵심 개념

뿌리분은 굴취할 때 뿌리와 붙은 흙을 함께 남긴 부분이며, 이식 뒤 활착에 필요한 세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세근 발달이 느리거나 산에서 채집하여 뿌리가 넓게 퍼진 수목은 뿌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분을 크게 뜬다. 천근성 수종은 뿌리가 옆으로 퍼져 접시분으로, 심근성 수종은 뿌리가 깊게 뻗어 조개분으로 뜬다.

선지별 해설

① O 세근 발달이 느린 수종은 이식 후 새 흡수뿌리를 빨리 만들기 어렵다. 기존 세근을 더 많이 보존해야 하므로 뿌리분을 크게 뜬다.

② X 틀린 표현은 '관목보다 교목 쪽이 크다'이다. 근원직경에 대한 뿌리분 지름의 비는 일반적으로 교목보다 관목 쪽이 크다.

③ X 틀린 표현은 '천근성 수종은 조개분, 심근성 수종은 접시분'이다. 천근성 수종은 옆으로 넓게 퍼진 뿌리를 살리도록 접시분을 뜨고, 심근성 수종은 깊은 뿌리에 맞추어 조개분을 뜬다.

④ X 틀린 표현은 '분을 작게 뜬다'이다. 산에서 채집한 수목은 재배지 수목보다 뿌리가 넓게 퍼져 있고 줄기 가까이에 세근이 적을 수 있으므로 분을 크게 뜬다.

오답 포인트

③은 천근성과 심근성에 맞는 분의 형태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④는 산채목이 재배목보다 뿌리돌림을 덜 받아 세근이 줄기 가까이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게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근의 보존 필요성을 판단하여 세근 발달이 느리거나 산채목이면 큰 분을 선택한다. 이어서 뿌리의 주된 방향이 옆이면 접시분, 아래이면 조개분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세근이 늦고 산채목이면 큰 분, 천근성은 접시분, 심근성은 조개분이다.

NoteBase

문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②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③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④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 제6조 제1항의 열거사항과 도시공원별 조성계획을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의 공원녹지를 종합적으로 배치·확충·관리·이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개별 도시공원을 실제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핵심 구분

법 제6조 제1항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공원녹지의 축과 망, 수요와 공급, 보전·관리·이용, 도시녹화 등을 열거한다. 반면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뒤 입안하는 별도의 계획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포함된다.
② O.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다.
③ O.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포함된다.
④ X.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다.
틀린 표현: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올바른 표현: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개별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뒤 별도로 입안하는 계획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모두 공원 관련 계획이라는 점을 이용한 함정이다. 기본계획의 법정 내용에는 도시녹화·수요와 공급·축과 망이 들어가지만, 개별 공원의 조성계획 자체는 들어가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문제에서는 먼저 법 제6조 제1항의 열거사항인지 확인한다. 개별 도시공원의 설치·조성 절차나 조성계획을 묻는 표현이면 기본계획의 내용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계획은 공원녹지의 큰 틀, 조성계획은 개별 도시공원의 실행계획이다.

NoteBase